

張家山漢簡「脈書」와 馬王堆帛書 醫書 異文 考察*

金愛英*

目 录

- I. 序論
- II. 張家山과 馬王堆 異文 比較
- III. 異文字形考察
- IV. 結論

I. 序論

1983-1984년에 湖北省 江陵縣 張家山(지금의 荊州市 荊州區)의 墓¹⁾ 두 기에서 천여 매의 죽간이 발견되었는데 그 가운데에 고대 의서 두 종류가 포함되어 있다. 이름하여 『脈書』와 『引書』이다. 원본에 서명이 붙어있지는 않지만 내용을 근거로 볼 때 『脈書』는 다섯 종류의 의서를 포함하고 있는데 帛書의 醫書와 비교·정리하는 과정에서 帛書의 명칭을 본 따 각각 「病候」、 「陰陽十一脈灸經」、 「陰陽脈死候」、 「六痛」 그리고 「脈法」이라 칭하게 되었다. 이 가운데 「陰陽十一脈灸經」、 「陰陽脈死候」 그리고 「脈法」은 馬王堆帛書의 同名 醫書²⁾와 글자 차이만 있을 뿐 기본적인 내용은 같다.

* 安養大學校 中國語科 教授

- 1) 이 묘의 연대는 漢 呂后에서 文帝 初까지 대략 BC2세기 中期 정도로 馬王堆3號墓의 시기와 기본적으로 일치한다.(馬繼興 1992:158)
- 2) 馬王堆帛書醫書는 14종의 저작과 별본 1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별본 이외의 다른 저작들은 모두 서명이 없을 뿐 아니라 序나 著者의 이름 조차도 없다. 편찬체제나 내용이 각각 독립적이지만 기본적인 내용이 갖추어져 있으므로 저서의 주제나 키워드에

張家山漢簡『脈書』는 모두 66매³⁾이고, 죽간의 길이는 34.2-34.6센티이다. 한편 이에 상응하는 馬王堆 醫書⁴⁾는 帛書에 쓰여진 것으로 재료에 차이가 있지만 내용이나 사용된 문자 등이 張家山과 기본적으로 동일하고 두 저서의 저작연대가 기원전 2세기라는 점에서 두 저서를 상호비교하면 보다 완전하게 각 의서를 복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張家山漢簡『脈書』의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⁵⁾. 「病候」는 『脈書』의 첫 번째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앞부분에 60여 종의 질병명이 수록되어 있다. 머리에서 발까지 내과·외과·이비인후과·부인과·소아과·신경과 등에 걸쳐서 차례대로 배열되어 있어 中醫學史에 중요한 자료로 제공되고 있는데, 특히 馬王堆帛書의 『五十二病方』에 기록되어 있는 病名과 유사한 것이 많다.

「陰陽十一脈灸經」은 『脈書』의 두 번째 부분으로 全身 十一脈의 명칭, 각 맥의 순행부위 그리고 始動病과 所生病 및 각 맥에서 발생하는 병의 종류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내용면에서 馬王堆醫書의 「陰陽十一脈灸經」甲·乙本

의거하여 마왕퇴백서 정리팀이 아래와 같이 이름붙였다. 「足臂十一脈灸經」, 「陰陽十一脈灸經」(甲本·乙本), 「脈法」, 「陰陽脈死候」, 「五十二病方」, 「養生方」, 「雜療方」, 「胎產書」, 「却穀食氣」(이상은 帛書), 「導引圖」(帛書), 「十問」, 「合陰陽」, 「雜禁方」, 「天下至道談」(이상 4종은 竹簡書).(馬繼興 1992:1-2 참조)

3) 張家山漢簡整理小組가 66枚라 한 반면 連劭名(1989:75)은 65枚라 하였다.

4) 馬王堆醫書는 1973년 湖南省 長沙市 馬王堆 3號 漢墓에서 출토된 帛書와 簡書에 포함되어 있다. 3號 漢墓의 帛書와 簡書 가운데 식별할 수 있는 글자는 대략 13만 자로 古本『周易』, 古本『老子』 그 외에 歷史·地理·軍事·天文·占卜 및 醫藥 등 방면의 저서를 포함하고 있다. 醫藥·方技에 속하는 저서에서 식별 가능한 글자는 23,000여자로 전체 帛書의 6분의 1 분량이다. 의약과 방기에 관한 것은 14종 저작과 별본 1종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개별 저작 이외의 대부분은 題目이나 序跋 심지어 저작자의 이름도 없다. 각 저서는 편찬체제가 다르고 내용도 독립적이어서 각기 다른 시기·다른 저작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고, 일부는 가공·보완된 흔적도 보인다. 馬王堆帛書研究팀이 원서의 주제나 키워드에 의거해 잠정적으로 서명을 붙였는데 아래와 같다. 「足臂十一脈灸經」·「陰陽十一脈灸經」(甲本·乙本)·「脈法」·「陰陽脈死候」·「五十二病方」·「養生方」·「雜療方」·「胎產書」·「却穀食氣」(이상 帛書), 「導引圖」(帛書), 「十問」·「合陰陽」·「雜禁方」·「天下至道談」(이상 簡書).

5) 馬繼興(1992) 참조.

과 완전히 동일하므로 「陰陽十一脈灸經」丙本이라고도 칭해진다. 張家山과 馬王堆 두 자료를 비교해보면 張家山の 내용이 훨씬 완전하다. 보존된 글자수⁶⁾만 보더라도 張家山(丙本)은 915자, 馬王堆 甲本은 583자, 馬王堆 乙本은 793자로 차이가 있다. 또한 개별 내용의 脫字·衍字·誤字·古今字·俗字·通假 등을 상호비교하여 복원이 가능하다.

「陰陽脈死候」에서는 三陽脈의 死亡病候 한 가지(一死)와 三陰脈의 死亡病候 5가지(五死)를 논하고 있다. 현존하는 글자수 역시 張家山本(乙本) 166자와 馬王堆本(甲本) 89자의 차이가 있다.

「六痛」은 張家山 「脈書」의 「陰陽脈死候」乙本 뒤에, 「脈法」의 앞에 위치하고 있는데 원서는 모두 111자로 보존상태가 완전하다. 서명이나 撰者의 성씨가 표기되어 있지 않으므로 본문의 요지인 “六痛”에 의거하여 「六痛」이라 칭해진다. 4言 韻文으로 되어있고 내용은 인체 내의 여섯 조직 즉 骨·筋·血·脈·肉·氣의 생리작용과 그로 인해 발병이 되는 “痛”의 病症特徵, 그리고 섭생과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脈書」의 내용은 馬王堆 醫書 「脈法」甲本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다만 張家山本은 312자가 보존되어 있는 반면 馬王堆는 고작 188자만이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張家山本에 의거해 馬王堆本의 결손부분을 보충할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 「脈書」는 의미상 크게 일곱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⁷⁾. 첫째 脈의 중요성, 둘째 氣의 생리 규율과 치료 원칙, 셋째 脈氣病에 쓰이는 뜸과 침의 치료방법, 넷째 화농성병에 쓰이는 활석(침) “啓脈”이론과 방법, 다섯째 진맥방법, 여섯째 脈象, 일곱째 결어이다.

본 논문에서는 張家山「脈書」와 馬王堆漢墓帛書의 「病候」·「陰陽十一脈灸經」甲·乙本·「陰陽脈死候」·「六痛」·「脈法」에 기록된 문자를 상호 비교하여 두 자료의 異文에 대하여 초보적인 고찰을 진행하고자 한다. 「陰陽十一脈灸經」⁸⁾·「陰陽脈死候」·「脈法」은 두 자료가 모두 존재하여 상호비교가 가능

6) 馬繼興(1992:166) 참조.

7) 馬繼興(1992:168) 참조.

8) 이후 「足臂」로 간칭함.

하지만 「病候」와 「六痛」은 張家山 漢簡에만 남아있어 이문비교가 어려우므로 본 논문의 대상에서는 배제하기로 한다.

II. 張家山과 馬王堆 異文 比較

張家山 『脈書』과 馬王堆 醫書의 이문을 비교하되 본 문장에서는 통가자나 일반적인 이체자 그리고 명확한 오자에 대해서는 후미에 일괄 배열하고 설명이 필요한 글자들에 한해서 논의하기로 한다. 논의는 高大倫(1992)이 張家山 『脈書』를 고석할 때 세부분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는데, 본문에서도 그에 따라 세부분으로 나누어 번호를 붙였다. 단 I 부분은 마왕퇴 백서나 여타 다른 자료에는 출현하지 않아 비교대상이 없으므로 본문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II.1 張家山「陰陽十一脈灸經」: 馬王堆「陰陽十一脈灸經」甲本: 馬王堆「陰陽十一脈灸經」乙本.

본 절에서 예로 든 異文은 張家山 漢簡, 馬王堆 甲本, 馬王堆 乙本の 순서이다. 「陰陽十一脈灸經」⁹⁾에 두가지 판본이 존재하기 때문에 편의상 甲本과 乙本으로 나누어 칭하고 있다. 두 판본의 내용은 대동소이하지만 異文이 존재하므로 당시 문자사용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 2.1 脈: 脈: 𩇛 (脈)

馬王堆 甲本에는 脈으로 되어있다. 『說文』에 「脈(𩇛), 目財(邪)視也. 從目辰聲(훔쳐보는 것이다)」라 하였고, 『佩觿』에 「脈脈, 并莫革翻, 上斜視也, 下血脈也, 從永者俗(脈과 脈 두 글자 모두 莫革翻으로 동음이다. 脈은 훔쳐보다

9) 이후 「陰陽」으로 간칭함

는 뜻이고 脈은 혈맥을 의미한다. 俗字에서 편방을 永으로도 쓴다. : B02873(교육부이체자전)).'라 하였듯이 月과 目이 서로 혼용되어 쓰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乙本에는 𠂔으로 쓰여 있다. 『說文』 '辰, 水之衰流, 別也. 從反永. 讀若稗縣(물의 지류이다. 다른 것이다. 永을 뒤집어 쓴 자형이다. 稗縣처럼 읽는다).'에 의거하면 辰은 永을 뒤집어 쓴 자형이고, 또한 『說文』 '紕, 血理分衰行體者. 從辰從血. 脈, 或從肉. 脈, 籀文.(피가 몸을 따라 흘러서 흐르는 것으로 辰과 血로 이루어진다. 脈이 이체자형이고 脈은 주문이다)'에서와 같이 月과 血이 통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戰國楚系列文字에서 𠂔을 𠂔으로 하단 永을 川으로 쓰기도 한 것으로 볼 때 永을 뒤집어 쓴 辰을 川으로 쓸 수 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로부터 目과 月, 그리고 辰·川·永이 서로 통용되어 쓰였음을 알 수 있다. 脈은 『皇帝內經』 등의 醫書에서 말하는 經脉 혹은 經絡의 의미이다.

2) 2.1 𠂔 : 𠂔 : 𠂔 (繫)

『說文』 𠂔, 相擊中也(부딪치다이다). 『字彙』 '𠂔, 與𠂔同, 車下作△, 俗作山譌(𠂔, 𠂔과 같다. 車 하단을 △로 쓴다. 俗字로 山으로 쓰기도 하는데 이는 와변된 것이다)', 『中文大辭典』 '𠂔, 音激係也. 又喫計二音(음이 격이고 있다는 의미이다. 喫과 計로 읽는다)'. 『隸辨』에 '𠂔, …按說文繫從系從𠂔, 碑則省系, 漢書景帝詔無所農桑𠂔畜, 師古曰𠂔古繫字(생각컨대, 說文에서 繫는 系와 𠂔로 이루어졌고, 碑文에서는 系가 생략되어 쓰인다. 漢書景帝詔의 無所農桑 𠂔畜에 대해 顏師古는 𠂔은 繫의 古字라 하였다)'라 한 것으로부터 𠂔、𠂔、𠂔, 繫가 서로 통용됨을 알 수 있다.

3) 2.1 踵 : 踵 : 踵 (踵)

『陰陽甲』原注에서는 '踵, 疑讀爲踵(踵이라 읽어야 할 것 같다)'라 하였고 周一謀·蕭佐桃(1988:23)는 '踵指脚後跟(踵은 발꿈치를 가리킨다)'라 하였다. 또한 『釋名·釋形體』에 '足後曰跟, 又謂之踵(발꿈치를 跟 혹은 踵이라 한다)'

고 함으로써, 潼과 踵의 의미가 통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潼은 定母東部, 踵은 章母東部로 성모의 발음부위가 유사하고 첩운관계로 음운적인 면에서도 관계가 밀접하므로 서로 통한다고 할 수 있다.

4) 2.1 脛：郢：郢（郢）

甲本과 乙本에 郢로 되어있고, 張家山과 「足臂」에 脛로 되어있다. 『國語大字典·月部』에 ‘脛, 同肱, 腋下(脛은 肱과 같고, 겨드랑이이다)’라 하여 본문의 문맥(다리부분)과 부합되지 않는다. 『集成』¹⁰⁾(4:187)에 ‘原注脛, 卽却, 後世常寫作郢……原釋文脛, 失之(원주의 脛은 바로 却으로 후세에는 郢으로 많이 쓰였다. 원석문의 脛은 틀린 것이다)’라 하였다. 『廣韻·入聲·陌韻』에 ‘郢, 姓. 俗從. 綺戟切(郢는 성씨로, 속자로는 편방 𨔵을 쓴다. 발음은 綺戟切이다)’, 『集韻·入聲·陌韻』에 ‘郢, 或作郢. 乞逆切(郢은 郢로도 쓴다. 발음은 乞逆切이다)(B05148-003) 등을 통해서도 郢과 郢이 서로 통함을 알 수 있다. 却(郢)은 무릎 뒤쪽 움푹 파여진 오금 즉 膝部太陽區¹¹⁾를 가리킨다. 따라서 張家山の 脛은 고식 오류로 판단한다.

5) 2.1 臀：振：振（臀）

臀·振과 振은 모두 상고음 文部韻으로 운부가 같고, 성모는 臀는 定母, 振、振은 章母로 振, 振은 臀과 음운면에서 통용된다. 臀은 엉덩이 부분(尻部)을 가리킨다.

『國語·周語』‘其臀以墨’의 韋注에 ‘臀, 尻也’라 하였고, 『靈樞·經脈』의 張介賓注에 ‘尻旁大肉曰臀(꼬무니 주위의 살덩이를 臀라 한다)’라 하였으며, 『太素』卷8 楊注에 ‘臀音屯, 尻之厚肉也(음이 屯이고 엉덩이의 두툼한 살이다)’라 하였다. 또한 『十四經發揮』滑壽注 ‘臀, 尻也. 挾腰髀骨兩旁爲機, 機後爲臀(허리뼈를 양쪽으로 둘러싼 부분을 機라 하고 그 뒷부분이 臀이다)’¹²⁾라 하였다.

10) 이후 『長沙馬王堆帛書集成』을 간략하게 『集成』으로 칭한다.

11) 『素問·刺腰痛』李陽冰注‘古『中誥』以臍中爲太陽之郢’.

帛書『周易』夬94 ‘脈無膚’(57下)의 ‘脈’과 困初六‘辰困于株木’(62上)의 ‘辰’을 漢石經本、王弼本에서 모두 ‘臀’으로 쓴 기록이 있는데 이것으로부터 臀과 脈·辰이 통함을 알 수 있다. 『說文』에 ‘振, 舉救也. 一曰奮也(떨치다이다.奮이라고도 한다).’, ‘脈, 動也(움직이다이다)’이라 되어있고 段注에 ‘脈, 動也. 與口部唇、雨部震、手部振音義略同(움직이다이다. 口부의 唇, 雨부의 震, 手부의 振과 음의가 대체로 같다)’라 한 것으로부터 辰、脈、臀、脈、振이 서로 통한다고 할 수 있다.

6) 2.1 壓(壓) : 厭 : 厭 (厭)

『靈樞·經脈』에 厭으로 되어있다. 『素問·氣穴論』‘兩脾厭分中二穴(양쪽 넓적다리의 厭中과 分中 2개의 혈이다)’의 王冰注에 ‘謂環銚穴也, 在髀樞後, 足少陽、太陽二脈之會(이것은 環銚穴이다. 넓적다리 뒤쪽에 위치하고 足少陽과 足太陽 경맥이 만나는 지점이다)’. 즉 厭中은 髀厭으로써 대전자에 상당한다. 厭과 厭은 上古音が 모두 影母, 談部韻으로 동음이다. 고대 문헌에서 ‘厭’과 ‘厭’이 통용된 예는 상당히 많다. 예를 들면 『左傳·成公18年』‘大國無厭’을 『經典釋文』卷17에서 ‘無厭’이라 썼고, 『老子·72章』‘無厭其所生’를 馬王堆帛書甲本及乙本『老子』에서 ‘厭’으로 썼다. 『說文』‘厭’의 段注에 ‘淺人多改厭爲厭, 厭行而厭廢矣…厭厭古今字’라 한 것 등으로부터 厭과 厭이 이체임을 알 수 있다. 또한 ‘壓’은 厭에 手가 더해진 이체자형으로 볼 수 있다.

7) 2.1 頰: 髑: 髑 (髑)

『說文』에 ‘頰, 鼻莖也. 髑, 或從鼻髑(頰은 콧대로 髑라 쓰기도 한다)’라 한 것으로부터 張家山の 頰과 甲本の 髑이 이체관계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乙本の 髑은 『玉篇』에 이르러서야 자전에 수록된다. 『玉篇』에 ‘肩骨’이라 한 한편 『集韻』에서는 ‘缺盆骨’과 ‘胸前骨’의 두가지 뜻풀이가 있는데, 모두 乙本の 髑

12) 馬繼興(1992:220) 재인용.

대라는 의미와는 부합하지 않는다. 백서에 본 자형이 있다는 것은 당시 자형이 존재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콧대를 의미하는 頰과 顴에 해당하는 의미로 쓰였으므로 당시에 두 글자와 통용되었으나 후에 자전에 수록되어 어깨와 쇄골 부근을 지칭하게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頰과 顴은 이체관계로 보고, 顴은 통가자로 쓰인 것이라 본다.

8) 2.1 冲：衝：潼（衝）

冲과 冲은 異體관계이고, 다시 冲과 衝이 異體관계이다. 『說文』 冲의 段注에 ‘颶風傳曰。冲冲、鑿冰之意。義亦相近。召南傳曰。冲冲、猶衝衝也。冲與冲聲義皆略同也(颶風傳에冲冲은 얼음이 깨진다는 의미로(涌搖)와 의미가 비슷하다. 또 召南傳에서 말하길 冲冲은 衝衝과 같다. 冲과 冲 두 글자는 음의가 모두 같다)’라 한 것을 증거로 들 수 있다. 『正字通·行部』에 이르길 ‘『說文』本作衝, 今作衝(a03705-003)’라 한 것과, ‘潼’에 대하여 『康熙字典』에서 ‘『廣韻』尺容切, 『集韻』昌容切, 音衝. 義同. 一曰水裏道’라 한 것에 의거하여 冲(澄母中韻), 衝(衝·昌母東韻) 그리고 潼(定母東韻)이 모두 통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9) 2.1 肱：臑：□（臑）

『說文』 ‘肱, 亦下也(거드랑이이다)’라 하였으나 臑은 바로 膝臑窩(오금)로 의미가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馬繼興(1992:223)은 肱은 본 경락(足泰陽膀胱經¹³⁾) 순행경로와 맞지 않고, 『靈樞·經脉』과 『甲乙經』卷2第一上 그리고 『太素』卷8, 『素問·至真要大論』에서도 모두 ‘臑如結’라 썼으므로 이에 의거하여 臑으로 정정한다고 하였는데 본 글자가 포함된 본문의 문맥 상 馬繼興의 견해가 타당하다.

13) 足太陽膀胱經은 신·방광·뇌·눈·귀·목덜미·척추·엉덩이·다리 뒷면·새끼발가락 등과 연계되었다. 족태양방광경에 병이 생기면 눈과 머리가 아픈 증, 요통, 고관절(股關節)·슬관절 및 장딴지 아픔, 치질, 학질, 전광증(癲狂證), 콧물, 코피, 새끼발가락을 쓰지 못하는 등 증상이 나타난다. (한의학대사전, 2001. 6. 15., 도서출판 정담)

10) 2.1 踵：蹠：□ (蹠)

馬繼興과 『集成』甲本注에서는 踵을 蹠의 訛字라 하였다. 『靈樞·經脈』, 『鍼灸甲乙經』卷2, 『脈經』卷6에서 모두 ‘蹠蹠’이라 기록한 것에 의거하여 蹠가 맞는 글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11) 2.1 蹠：蹠：蹠 (蹠)

蹠(蹠)과 蹠은 上古音 見母, 月部韻으로 동음이다. 蹠자의 의미는 氣가 역으로 치밀어 오르는 것이다. 『釋名·釋疾病』에 ‘蹠, 逆氣從下蹠起上行入心脈也(기가 거슬러 올라 심맥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다)’라 하였다. 『說文』蹠의 段注에 ‘孟子, 今夫蹠者趨者, 是氣也。而反動其心, 讀亦若蹠, 亦者, 謂讀若蹠矣, 又讀若蹠也(맹자에서 뜀금없이 넘어지는 자나 뛰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이것은 氣인데 마음과는 어긋나는 것이라 하였는데, 蹠은 蹠로도 읽는다. 亦이라는 것은 蹠로도 읽고 蹠로도 읽는다는 것이다.)’라 한 것으로부터 蹠과도 통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12) 2.1 濡：□：耳 (枕).

耳와 濡의 古音은 각각 日母·之부와 邪母·侵부로 다르므로 음운면에서는 통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馬繼興(1992:224)은 濡은 枕의 가차로서 枕은 章母·侵部이므로 濡과 枕운통가를 이룬다고 하였다. 즉 濡의 耳는 誤字라 할 수 있다.

13) 2.2 瘕：稷：則 (側)

『集成』(5:197)에 ‘『史記·秦本紀』索隱云 秦昭襄王名則, 一名稷(『史記·秦本紀』索隱에 따르면 秦昭襄王의 이름은 則인데 稷이라고도 한다)’라 하였고, 馬繼興(1992:228) 역시 『尚書中候』‘舜至於下稷’의 宋注 ‘稷, 側也’와 『孝經緯鉤命訣』‘日稷而日光起’의 注 ‘稷, 讀曰側下之側’를 인용하여 稷이 側의 통가자

임을 증명하였다. 張家山の 瘠은 바로 瘦자인데, 𦵑은 𦵑이 와변된 형태이다. 𦵑은 稷의 성부이고 稷이 則과 통하므로 瘦・稷・則 세 글자의 통용현상은 설명된다. 앞 글자는 反으로써 각각 ‘反瘦’, ‘反則’이 되는데 동일 부분에 대하여 『靈樞・經脈』에서는 ‘轉側’으로, 『素問』, 『太素』, 『經脈』에서는 모두 ‘反側’으로 기재되어 있다.

14) 2.2 𦵑: 𦵑: 𦵑 (瘠)

上古音 瘠과 𦵑의 운부는 모두 質部에 속하고 성모는 幫母와 滂母로 유사하다. 음운면에서 유사하므로 𦵑과 瘠은 통한다고 볼 수 있다. 『說文』에 따르면 ‘瘠, 溼病也.(습병이다)’, ‘𦵑, 股也. 𦵑, 古文𦵑(정강이다. 𦵑은 𦵑의 고문이다)’, ‘𦵑, 水.(𦵑는 물이름이다)’라 하였는데 문자사용에 있어서 𦵑은 𦵑로 도 많이 쓰였다. 따라서 𦵑을 𦵑으로도 쓸 수 있다. 『集成』甲本注와 高大倫(1992:42) 등의 고석에 따르면 甲본의 𦵑과 張家山の 𦵑은 자형이 비슷해서 생긴 오자라 한 바 있고, 음운 역시 다르다. 음운을 참고할 때 甲본의 𦵑은 자형의 유사함에서 발생한 오자라고 볼 수 있다.

15) 2.3 信: 龍: 信 (伸)

『集成』甲本注(5:198)에 ‘[帛書老子乙本]의 ‘是胃曳明’을 通行本에서 ‘是謂襲明’라 한 것에서 원래는 喜申(伸)이었는데 申字를 曳로 잘못 쓰고 다시, 襲으로 가차한 것이 아닌가’ 했다. 같은 맥락으로 申의 오자 曳자가 襲으로 가차되었는데 甲本에서 龍으로 잘못 쓰인 것이라 추정한다. 『太素』卷8에는 ‘善伸’으로, 『靈樞・經脈』에는 ‘善呻’으로 되어있는데, 呻・伸(書母眞部)・信(心母眞部)은 음이 비슷하여 서로 통용된다.

16) 2.3 惡: □: 亞 (惡)

『康熙字典』亞字에 ‘與惡同. 『史記・盧綰傳』綰孫他人封亞谷侯. 『漢書』作

惡谷…古亞惡二字通用(『史記·盧綰傳』에 綰의 손자가 亞谷侯에 봉해졌다고 한 것을 『漢書』에서는 惡谷이라 적었다. 즉 예전에는 亞와 惡 두 글자가 통용되었다.)¹⁴⁾라 하였다. 『靈樞·經脈』, 『脈經』卷6, 『甲乙』卷2에 ‘病至則惡人與火(병이 발생하면, 사람과 불을 싫어하며)¹⁴⁾’라 하여 惡으로 썼고 이를 乙本에서는 亞로 썼다.

17) 2.3 惕：腸：□ (蕩)

馬繼興(1992:234)은 ‘惕與腸爲同源字, 上古音屬透定旁紐, 鐸陽旁對轉, 故惕通作腸(惕과 腸은 同源字로서 上古音 透定旁紐, 鐸陽旁對轉에 속한다. 따라서 惕과 腸은 통한다).’고 하였지만 『集成』甲本注에서 裘錫圭(1992:530)¹⁵⁾의 견해에 따라 『靈樞』의 문장을 비교할 때 ‘動’과 ‘欲’ 두 글자의 순서가 잘못되었

14) 죽양명경병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胃經病을 달리 이르는 말로 십이경병의 하나이다. 『靈樞·經脈』에서 “是動病의 증상은, 오싹오싹 추위에 떨며 신음을 잘 하고 자주 하품 하며, 안색이 까맣게 되고 병이 발생하면, 사람과 불을 싫어하며 나무 소리를 들으면 깜짝 놀라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방문과 창문을 닫고 홀로 있으려고 하며, 심하면 높은 곳에 올라가 노래하며 옷을 버리고 달리려고 하며, 腸鳴과 腹脹이 있으니, 이것은 肝厥이 됩니다. 이것은 血의 所生病을 主하는데 그 증상은 狂瘡, 溫淫, 汗出, 衄衄, 口喎, 唇腫, 頸腫, 喉痺, 大腹水腫, 膝腫痛이 있고, 膺乳, 氣街, 股, 伏兔, 肝外廉, 足跗上을 따라 모두 아프며, 가운데 발가락을 쓰지 못합니다. 氣가 盛하면 신체의 앞면에 모두 열이 나는데, 그것이 胃에 有餘하면 消穀善飢하며, 오른쪽이 노랗게 됩니다. 氣가 부족하면 신체의 앞면이 모두 추워서 떨리는데, 胃中이 寒하면 脹滿이 됩니다.(是動則病酒酒振寒, 善呻, 數欠, 顏黑, 病至則惡人與火, 聞木聲, 則惕然而驚, 心欲動, 獨閉戶塞牖而處. 甚則欲上高而歌, 棄衣而走, 賁聾腹脹, 是謂肝厥. 是主血所生病者, 狂瘡溫淫, 汗出衄衄, 口喎, 唇腫, 頸腫, 喉痺, 大腹水腫, 膝腫痛, 循膺乳氣街, 股伏兔肝外廉, 足跗上皆痛, 中指不用氣盛, 則身以前皆熱, 其有餘於胃, 則消穀善飢, 溺色黃, 氣不足則身以前皆寒慄, 胃中寒則脹滿.)”라고 하였다. (한국전통지식포털: <http://www.koreantk.com/ktkp2014/>)

15) 『靈樞』此處上下文與上引帛書大體相同‘心欲動’下尚有‘獨閉戶塞牖而處,甚則欲上高而歌, 棄衣而走’等語,據帛書可知「靈樞」之文本當作‘聞木音則惕然而驚, 心動, 欲獨閉戶塞牖而處……’今本‘動’‘欲’二字誤倒. 帛書‘心腸’與「靈樞」‘心動’相當, 腸似應讀爲可訓爲動的蕩. 『左傳·莊公4年』記楚武王伐隨國前‘將齊, 入告夫人鄧曼曰, 余心蕩’,杜注‘蕩, 動散也’. 帛書把‘然’上的‘憊’字看作‘惕’的誤字是對的.(此字「陰陽十一脈灸經」乙本作易, 把腸也當作惕的誤字恐怕有問題, 緊接着‘惕然驚’又說‘心惕’, 文義犯複, 恐無是理).

고 帛書의 ‘心腸’은 「靈樞」의 ‘心動’에 해당하므로 腸은 ‘(심장이) 뛰다(動)’로 풀이되는 蕩으로 읽어야 한다. 蕩의 상고음은 透母陽部이고 腸은 定母陽部로 성모는 모두 舌音으로 발음부위가 같고 운부 역시 동일하므로 통할 수 있다. 한편 暢은 透母鐸部로 蕩과 동일 성모이고 운부는 旁轉을 이루므로 역시 통한다고 볼 수 있다.

18) 2.5 際：漬：牘(毗)

上古音에서 毗는 崇母佳部, 漬는 從母佳部로 漬毗는 침운이고, 牘는 漬과 聲符가 동일하므로 통가될 수 있다. 또한 際는 精母祭部로 毗의 음과 유사하다. 際의 의미는 ‘邊際, 邊界(가장자리)’로서 『小爾雅·廣詁』 ‘際, 界也(경계이다)’, 『廣雅·釋詁4』 ‘際, 會也(만나는 곳이다)’라 한 것을 볼 때 눈꼬리 위아래 눈꺼풀이 만나는 곳을 가리켜 目外毗와 통하고, 음운면에서도 定母月部로 동일 운모의 陰入운미로 통한다.

19) 2.7 毆：毆：也(也)

『說文』 ‘毆, 擊中聲也(부딪치는 소리이다).’의 段玉裁注에 ‘秦人借爲語詞. 詛楚文, 禮使介老將之以自救毆. 薛尙功所見秦權銘, 其於久遠毆. 石文, 汧毆沔沔. 權銘毆字、琅邪臺刻石及他秦權秦斤皆作𠂔. 然則周秦人以毆爲也可信. 詩之兮字、僞詩者或用也爲之. 三字通用也. 從殳. 殳聲(진대에는 어조사로 썼다. 詛楚文의 禮使介老將之以自救毆. 薛尙功이 보았다는 秦權銘의 其於久遠毆. 石文의 汧毆沔沔등이 그 예이다. 그 가운데 權銘의 毆字를 琅邪臺刻石과 기타 秦權 및 秦斤에서는 모두 𠂔로 썼다. 그러므로 周秦시기에는 毆를 也로 썼다고 믿을 수 있다. 또한 詩에서의 兮字를 경학자들 사이에서 간혹 也로도 썼다. 즉 이 세 글자가 서로 통용되었던 것이다)’라 하여 야와 毆가 이체자임을 밝혔다. 그 외에 『古文苑·詛楚文』 ‘將之以自救毆’의 章注에 ‘久湫本作也(久湫本에서는 也로 썼다)’고 하였고, 睡虎地秦簡「金布律」等の 고문서에서는 ‘也’를 모두 ‘毆’로 썼다.

20) 2.7 快：佚：逢 (佚)

馬繼興(1992: 248)과 高大倫(1990:64)은 『靈樞·經脈』에 의거하여 快이라 하고 佚를 形近誤字라 한 반면 『集成』(5:200)에서는 快, 逢은 佚의 誤字라 하였다. 魏啓鵬·胡翔驊(1992:29)¹⁶⁾은 ‘佚는 佚、逸과 통하고, 安逸、舒服(편안하다)의 의미이다. 逢과 佚의 자형이 확연히 다르지만 佚字는 자형구조면에서 볼 때 偏旁 心과 성부 失로 이루어진 글자이다. 戰國時期 楚문자에서는 失을 避로 썼었고 逃逸(달아나다)의 의미의 逸字로 쓰였다(趙平安『戰國文字的避與甲骨文牽爲一字說』참고). 또한 逸과 失 혹은 聲符 失로 구성된 글자들이 자주 通假되었다(高亨『古文字通假會典』참조). 逢字를 秦漢文字에서는 逢로도 썼는데 偏旁 羊이 羊으로 와변된 것이다. 이로부터 帛書乙本の 逢은 避字의 오자라 볼 수 있고, 『靈樞·經脈』等醫籍와 甲本 佚에 해당하는 快 역시 佚字의 오자라 할 수 있다.

21) 2.8 瘥(瘥/足)：瘥：厥(厥)

瘥는 瘥의 偏旁에 변화가 생긴 이체자형인데 여기서 厥의 통가자로 쓰인 것이고, 甲本 瘥은 厥과 음은 다른 의미로 존재하던 글자였으므로 역시 諱의 通假로 본다.

22) 2.8 叢：叢：叢(叢)

『金石文字辨異·平聲·東韻 ‘叢’에서 「漢嵩山少室 石闕銘」에 ‘叢’라 되어 있는 부분을 인용하였고 그 案語에 ‘叢卽叢’이라 하였고, 또한 『說文』·『集韻』 등 전통 자서에서도 叢를 叢의 이체자형으로 수록하였다.

16) ‘佚, 通佚、逸, 安逸、舒服. 今按逢與佚寫法迥異, 佚字, 從其構形看, 應該是一個從心、失聲之字; 戰國楚文字中通常用爲失的字寫作避, 卽逃逸之逸字, 詳看趙平安『戰國文字的避與甲骨文牽爲一字說』(『古文字研究』第22輯, 中華書局, 2000年, 275-277). 而逸與失或從失聲之字往往通假(參看高亨『古字通假會典』529-530‘逸字聲係’諸例, 齊魯書社, 1989年), 逢字在秦漢文字中或寫作逢, 從逢訛變作羊形. 可知帛書乙本の逢應該就是避字之形訛.

23) 2.8 驪：疵：疵(疵, 驪)

『太素』卷8과 『靈樞·經脈』卷2에 ‘面塵’이라 되어있는데, 面塵은 얼굴이 야위고 핏기가 없어 흙빛을 띤 것을 형용한다. 『說文·疒部』에 ‘疵, 病也(병이다)’라 되어있고, 『尚書·大誥』 ‘知我國有疵’에 대하여 『經典釋文』卷4에 ‘疵, 馬注云, 瑕也(흠이다)’라 하였다. 驪는 새까만 말의 의미로서, 『說文·馬部』 ‘驪, 馬深黑色(새까만 색깔의 말)’이라 한 것과 상통한다. 따라서 面驪란 얼굴에 새까만 말의 색깔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驪、疵、塵 세 글자 모두 병색이 완연하여 얼굴이 새까맣게 변한 모습을 형용한 것으로 서로 의미가 통한다고 볼 수 있다(馬繼興:255).

24) 2.8 瘡：□：降(瘡)

『甲乙經』에 ‘瘡閉’라 되어있고, 『太素』卷8에는 ‘閉瘡’라 하였다. 瘡과 降은 모두 侵部에 속하고, 瘡은 來母, 降은 見母로써 서로 통한다(**kr 복성모의 혼적). 『說文』에 ‘罷病也。從疒隆聲。瘡, 籀文瘡省(노인병이다. 형부 疒과 성부 隆로 구성되었다. 瘡는 주문 瘡의 생략형이다)’라 한 것으로부터 瘡은 瘡의 異體임을 알 수 있다.

25) 2.9 悵：恂：□(喝)

『靈樞·經脈』에 ‘喝喝而喘’로 되어있다. 이에 대하여 馬繼興(1992:259)¹⁷⁾은 ‘悵悵은 고문으로 邑邑으로 쓰기도 하였다. 悵과 邑은 상고음에서 모두 影母·緝部韻으로 同音通假이다. 悵悵은 걱정, 근심의 의미를 가진다.’라 하고 또 ‘恂는 字書에는 보이지 않는 글자로서 恂의 오자이다. 恂는 다시 喝로 가차된다’라 하였다. 하지만 高大倫(1990:75)¹⁸⁾과 劉釗(1994:35)¹⁹⁾은 오히려

17) ‘悵悵, 古又作邑邑. 悵與邑上古音均影母, 緝部韻, 同音通假. 悵悵有憂慮、憂郁之義. ‘恂, 不見字書, 當爲悵字之訛. 悵 又假爲喝’.

18) ‘悵悵, 當從甲本改作恂恂. 悵與恂形近而誤, 恂借爲喝’.

19) ‘喝從曷聲, 曷從勾聲, 而恂也從勾聲, 所以喝假借恂爲之’.

愾이 恹의 오자이고 恹는 喝로 가차된 것이라 하였다. 본 문장에서는 劉釗의 ‘喝은 성부 渴로 이루어졌고 다시 渴은 성부 勾로 이루어졌다. 恹 역시 성부가 勾이므로 喝과 恹는 가차된다’에 따라 愾을 오자, 恹과 喝은 통가로 본다.

26) 2.9 眊 : 膜 : 茫 (芒)

『靈樞·經脈』에 ‘目眊眊如無見’, 『素問·脈解』에 ‘目眊眊無見’라 되어있다. 『玉篇』에 따르면 ‘眊, 目不明(눈이 흐리다)’라 하고 『字統』을 인용하면서 ‘膜, 目不明(눈이 흐리다)’라 하여 두 글자가 서로 통용되었음을 시사하였다. 茫에는 또한 昏暗(어둑어둑하다)²⁰⁾의 의미가 있어 세 글자의 의미가 서로 통한다. 또한 음운면에서도 眊、膜、茫 세 글자의 성모가 모두 明母에 속하므로 서로 통한다.

27) 2.9 縣 : 縣 : 絕 (懸)

『靈樞·經脈』、『素問』卷8、『甲乙經』卷2第1 足少陰脈病侯에도 ‘心如懸’이라 되어있다. 懸은 맥이 거의 떨어지 않음을 뜻한다. 懸과 縣의 상고음은 匣母·元部로 同音通假이다. 絕 역시 ‘懸絶(맥이 거의 느껴지지 않다)’과 의미가 같다. 『素問·大奇論』‘懸去棗華而死(맥이 거의 잡히지 않는 것이 봄에 대추가 꽃을 피우자마자 죽는 것과 같다)’의 王注에 ‘懸, 謂如懸物, 物動而絶去也(현은 매달려 있되 조금만 움직이면 떨어지는 것이다)’를 그 방증으로 들 수 있다.

28) 2.9 黠 : 黠 : 黠 (黠)

『說文』에 ‘黠, 深黑也(새까맣다)’, ‘黠, 果實黠, 黠黑也(과실이 썩어서 검다)’라 하였듯이 두 글자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같다. 여기에 『一切經音義』卷19에 ‘黠、黠, 深黑也’라 하여 黠、黠 두 글자의 음과 의미가 비슷하여 통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 『莊子·盜跖』‘目茫然無見(눈은 멍하지 아무 것도 보이지 않다)’

29) 2.9 炏：𤇗：炏(炭也)

『說文』‘炏, 燭燼也(타다 남은 재이다)’라 하였는데, 이 글자를 『太素』卷8에서는 ‘面面如地色’으로, 『鍼灸甲乙經』卷2에는 ‘面面如炭色’이라 하였다. 자형을 놓고 볼 때 地、炭은 炭也의 자형을 따고 재와 의미가 비슷한 글자를 가져다 쓴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자취』에 ‘炏’의 이체자로 ‘炏’가 수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炏·炏·炭也 세 자형은 이체자 관계라 할 수 있다.

30) 2.9 瘡：瘡：單(疸)

『靈樞·經脈』에 ‘黃疸’로 되어있는 반면, 『太素』卷8에는 ‘黃瘡’으로 되어있다. 『說文』에 ‘瘡, 勞病也(근심병이다)’, ‘疸, 黃病也(황달병이다)’라 되어있지만 당시 자주 혼용되어 쓰인 현상이 있다. 이에 대하여 段玉裁는 注에서 ‘如郭注山海經、師古注漢書皆云。瘡、黃病。王砮注素問黃疸云。疸、勞也。則二字互相假而淆惑矣。疸與單上古音均端母元部韻, 同音通假。瘡爲端母歌部韻, 與疸可爲通假(『山海經』郭璞注와 『漢書』顏師古注에서 모두 瘡은 황달이라 하였고, 『素問』王砮注에서 黃疸에 대해 말할 때, 疸、勞也라 한 것으로 볼 때 두 글자는 서로 가차되면서 구분하지 않고 섞여 쓰였다)’라 하여 瘡과 瘡이 수시로 통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乙本の 單은 瘡의 성부를 공유하므로 당연히 瘡과 同音이다.

31) 2.9 耆：耆：耆(嗜)

耆과 耆는 모두 脂部韻에 속하고 모두 耆를 기본음으로 하므로 통가될 수 있다. 耆는 자형이 耆와 비슷하기 때문에 비롯된 자형오류로 보인다.

32) 2.10 履：履：履(履)

『說文』에 ‘履, 履也(신다)’로 두 글자가 서로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의미가 같다. 의미가 같으므로 두 글자가 서로 통용된 것이다

33) 2.10 幾：幾：希(既)

『集成』(5:203)에서 『周易·歸妹六五』釋文에 ‘幾, 苟作既(苟爽²¹⁾)은 既라 했다’를 근거로 하여 幾는 바로 既라 하였다. 幾는 見母脂部, 既是 見母微部로 쌍성가차이다. 希는 曉母微部로 두 글자와 또 가차된다.

34) 2.11 彭：滂：滂(彭)

『靈樞·經脈』, 『素問·至真要大論』, 『鍼灸甲乙經』卷1, 『脈經』卷6에 ‘彭彭’이라 되어있고, 『銅人鍼灸腧穴圖經』注에 ‘彭彭 謂氣不宜暢也(기가 순조롭게 펼쳐지지 못하는 것이다)’라 하였다. 이에 대하여 『集成』(5:204)에서는 ‘原注에 ‘流蕩狀(거침없이 흐르는 모양)’이라 하였듯이 심장이 가쁘게 뛰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으나 본 구절은 臂鉅陰脈의 始動病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心彭彭如痛’이라 하였으므로 심장이 가쁘게 뛰는 것 보다는 막혀있는 것처럼 아프다고 하는 것이 문맥에 맞는다. 彭과 滂은 모두 陽部韻에 속하고, 彭은 幫母, 滂은 滂母이므로 통가된다.

35) 2.11 戰：單(顫)

戰과 顫은 모두 고통·공포 혹은 추위 등으로 전신이 떠는 증상을 형용하는 것으로 음의가 같다. 한편 戰과 單의 上古韻部는 모두 元部, 성모는 각각 章母와 禪母로 침운이면서 성모 발음부위가 유사하므로 통가될 수 있다. 또한 『集韻』에 ‘單, 徒案切, 音憚. 與慄同’이라 하였다. 憚에는 ‘떨게하다’의 의미가 있으므로 본문의 戰과는 의미 뿐 아니라 음운면에서도 서로 통한다.

『靈樞·經脈』·『鍼灸甲乙經』·『脈經』권6 에서는 瞢로 되어있는데 『說文』에 ‘眵目謹視也(눈이 흐릿하여 잘 보이지 않다)’라 풀이되어 본문의 내용

21) 苟爽(128-190) 後漢潁川 사람. 저서에 『易傳』과 『詩傳』, 『禮傳』, 『尚書正經』, 『春秋條例』, 『公羊問』 등이 있었지만 모두 없어졌고, 費直의 古文易學을 연구한 『周易荀氏注』의 일부가 옥함산방집일서 및 『漢魏二十一家易注』에 전할 뿐이다.(중국역대인명사전, 2010: 이회문화사)

과는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6) 2.11 腎：癰：癰(肩)

『集成』(5:203)에서 腎은 楚系文字에서 ‘肩’字²²⁾로 쓰인 자형으로 『說文』 ‘肥腸也(대장이다)’의 腎과 자형이 같다. 『靈樞·經脈』에 ‘肺手太陰之脈所生病 氣盛有餘則肩背痛’, ‘氣虛則肩背痛寒’(수태음폐경의 소생병에서 기가 성하면 견배통이 생기고 기가 허하면 견배가 차면서 통증이 있다)’라 한 것으로 보아 이는 대장이 아니라 어깨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帛書乙本の ‘癰’은 楚文字에서 ‘病間’의 ‘間’을 ‘闕·勿·癰’ 등의 자형으로 쓴 것을 의거할 때²³⁾, 乙本の 癰은 ‘病間’의 ‘間’자로 유추할 수 있고 여기서는 ‘肩’으로 읽는다. 『孟子·滕文公上』 齊景公의 勇臣 ‘成鬲’이 있고, 『周禮·考工記·梓人』의 ‘數目 顧頭(눈이 가늘고 머리가 성기다)’에 대하여 鄭玄은 注에서 ‘故書顧或作輕. 鄭司農云輕讀爲鬲頭無髮之鬲(고서에서는 顧을 輕으로도 썼고 鄭衆은 輕을 鬲으로 읽었는데 이는 머리카락이 없다는 의미의 鬲이다)’라 하였듯이 ‘間’과 ‘肩’을 성부로 가지는 글자들끼리 서로 통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II.3 張家山「陰陽脈死候」: 帛書「陰陽脈死候」

본문은 帛書의 「陰陽脈死候」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陰陽十一脈灸經」이 甲本과 乙本の 두가지 판본이 있었던 것과는 달리 단일 판본이다.

1) 3.3 唇：脣(脣)

『說文』에 ‘脣, 口端也.(입술이다)’, 또 ‘唇, 驚也(놀라다).’라 하였다. 이에 대

22) 宋華強「由新蔡簡‘肩背疾’說到平夜君成所患爲心痛之癥」 http://www.bsm.org.cn/show_article.php?id=127, 宋華強「新蔡簡‘肩’字補證」, http://www.bsm.org.cn/show_article.php?id=284 참조.

23) 北京大學中文系、湖北省文物考古研究所『望山楚簡』97頁注(65), 中華書局, 1995년.

하여 『正字通』에서 『六書故』를 인용하여 ‘唇卽脣字，義通，從口從肉一也(唇은 바로 脣자이다. 의미가 통하고, 편방으로 쓰인 口는 肉과 같은 것이다)(a03333-004)’라 하여 두 글자가 이체관계로 서로 통용됨을 알 수 있다.

2) 3.3 齊 : 𠂔 (瘡)

瘡은 고대 전적에서 ‘瘡’라 쓰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春秋公羊傳·莊公二十年』의 ‘大瘡’에 대하여 『經典釋文』卷21‘大瘡’條에서 ‘瘡本或作瘡(瘡은 瘡로 쓰기도 하였다)’라 한 것을 들 수 있다. 瘡와 齊는 각각 精母와 從母이고 모두 脂韻으로 동일 운부이다.

3) 3.3 圓 : 𠂔 (𠂔)

『說文』에 ‘𠂔，目驚視也(놀란 눈으로 보다)’라 하였고, 『素問·診要經終論』에 ‘目𠂔’이 병증으로 출현하는데 이에 대하여, 王冰은 注에서 ‘𠂔，謂直視如驚貌(놀란 눈으로 똑바로 쳐다보는 모양이다)’라 하였듯이 중의학에서도 ‘어린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 산모가 갑작스럽게 놀라거나 공포를 느낄 때 태아가 그 기를 받아서 생후에 두 눈을 휘둥그레 뜨고 직시하면서 어찌할 줄 모르고 놀라 돌아보는 병증²⁴⁾’을 말한다. 馬繼興(310)은 張家山에서 𠂔(𠂔)을 圓으로 썼는데 이는 자형이 비슷한 데서 온 오자라 하였다. 두 글자에 등글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 외에 음운면에서도 거리가 있으므로 馬繼興의 견해를 받아들인다.

4) 3.3 囊 : 囊 (囊, 鞵)

囊字는 원래 囊形으로 囊의 생략형과 성부 九로 이루어진 囊의 이체이다. 赤堀昭、山田慶兒(1985:221)²⁵⁾가 이 글자를 ‘囊’라 고석하였다. 戰國楚系文

24) 한국전통지식포털(<http://www.koreantk.com/ktkp2014/>)

25) 赤堀昭、山田慶兒(1985) 『五十二病方』, 山田慶兒編 『新發見中國科學史資料の研究・譯註篇』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字에서 ‘囊’의 ‘齒’를 ‘齒’、韜、鞞 등의 형태로도 썼는데 冡 혹은 𦵏을 聲符로 하여 九를 성부로 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 그 가운데 齒字는 囊의 생략형이라고도 할 수 있으므로 冡과도 같다고 볼 수 있다(施謝捷 2002:29-32). 『說文』囊部的 ‘囊’은 囊의 생략형으로 이루어졌고 囊과 의미가 비슷하다. 이에 대하여 裘錫圭(1992:536)²⁶⁾는 囊은 辜丸을 의미하는 辜의 本字로서 陰囊을 말한다고 하였다. ‘辜丸’은 음낭 안에 있는 알로서 후대에는 ‘辜’로도 쓰고 ‘囊’의 이체자이다. 醫籍에서는 남자의 음낭 혹은 고환을 ‘囊’ 혹은 ‘卵’으로 칭하기도 한다.

II.4 張家山「脈書」：帛書「脈法」

1) 3.5 聖(聖)：聽

聖과 聽은 同源字로서 上古韻部가 모두 耕部이고 聲母는 각각 書母와 透母로 예부터 서로 통했다. 『風俗通』에 ‘聖者，聲也。聞聲知情，故曰聖也(소리이다. 소리를 듣고 상황을 알게 되므로 聖이라 한다)라 한 것과 같이, 聖은 귀로 들은 바를 제대로 판단하여 말로 하다는 의미이고 聽은 段注²⁷⁾의 설명과 같이 눈이 못 보는 것을 귀로 두루 잘 듣고 판단한다는 의미로 천하의 얘기를 듣다. 사안에 대해 귀를 기울이다에서 처럼 쓰인다.

2) 3.5 利：到

到는 利의 오자²⁸⁾(魏啓鵬、胡翔驊(1992:38), 馬繼興(1992:277))이다. 본문 ‘氣者，利下而害上’에 쓰인 것으로 ‘氣란 위로 향할 때는 몸에 이롭고 아래로

26) 裘錫圭(1992) 『馬王堆醫書釋讀瑣議』『古文字論集』中華書局：525-536.

27) ‘聆也。凡目所及者云視。如視朝、視事是也。凡目不能徧而耳所及者云聽。如聽天下、聽事是也’.

28) 魏啓鵬、胡翔驊(1992:38) 『馬王堆漢墓醫書校釋(1)』成都出版社. 1992, 馬繼興(1992:277) 『馬王堆古醫書考釋』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운행하면 몸에 해가된다'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帛書의 到는 문맥에 맞지 않고 利와 음운면에서도 전혀 관계가 없으므로 오자로 간주한다.

3) 3.5 煖 : 暖

『설문』에는 난만 수록되어 있고 난은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후대에 두 글자가 동일 음의를 가지로 함께 쓰였다. 『正字通·日部』 暖에 '『通雅』曰煖本與暖同, 皆乃管切, 在上聲旱韻(『通雅』에서 말하길 煖은 暖과 동일자로서 모두 乃管切로 읽고 上聲 旱韻에 속한다)'라 하였듯이 두 글자는 동일자의 이체자이다.

4) 3.5 肘 : 肘 (肘)

馬繼興은 『脈書』의 肘를 肘의 오자로 보고, 羅寶珍(2011:68)은 肘의 이체자로 보았다. 張家山247號漢墓竹簡整理小組는 肘를 肘로 고석하고 脚(다리)를 가리킨다고 하였다. 한편 『說文』에서는 '肘, 臂節也(팔꿈치이다)'라 하였다. 『莊子·至樂』의 '俄而柳生其左肘(甲자기 왼쪽 팔꿈치에 혹이 생겨)'에 대하여 陸德明은 『釋文』에서 '司馬本作肘(사마본에서는 발 肘라 하였다)'²⁹⁾라 한 것과 본문 '當臑與肘之脈而石已之'에 속한 글자로서 '오금과 팔꿈치 맥에 刺針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문맥상 통하므로 본자는 肘이고 여기에 偏旁 '亻'을 더하여 異體 肘가 되었다고 본다.

5) 3.5 砭 : 砭 (砭)

『玉篇零卷』에 '砭, 頡亦砭字也(창힐편에 砭자로도 적었다)', '砭, 甫廉反, 蒼頡篇砭字也. 說文以石刺病也. 廣雅砭謂之柴(甫廉反으로 蒼頡篇에서 砭字로 썼다. 說文에 의하면 돌로 병이 생긴 부위를 찔러 치료하였다고 하였다. 廣雅에서는 砭을 柴라 하였다)'. 砭은 편방 石과 聲符 汜으로, 砭은 石과 聲符 泛으로, 砭은 石과 汜 省聲으로 이루어진 글자들로 세 글자 모두 唇音聲母이고 운

29) 郭慶藩(1961:616) 참조, 羅寶珍(2011:68) 재인용.

부는 咸攝으로 聲韻이 서로 통하므로 통용된다. 『龍龕手鑑』、『玉篇』、『集韻』(a02836-002)等の 자서와 陰陽十一脈灸經 乙本에서는 砭의 古文으로 砭을 썼고, 仁和寺卷子本『太素』卷19「知針石」에서 역시 砭자를 모두 砭로 썼다.

6) 3.5 種 : 腫 (腫)

『說文』‘種, 𦵏也。從禾童聲(심다이다. 形符 禾와 聲符 童으로 이루어진다)’, 段注에서 ‘生民毛傳。種、雍腫也(「生民」의 모전에, 種은 부스럼이라 하였다)’와 본문 ‘癰種有農(부스럼에 고름이 고이다)’을 볼 때 이 글자는 腫이라 보는 것이 옳다. 腫과 種은 모두 章母, 東部韻이므로 同音通假가 된다.

7) 3.5 農 : 膿 (膿)

『說文』‘膿, 腫血也。膿, 俗從肉農聲.(혈농이다. 俗體는 膿로서 形부 肉과 聲부 農으로 구성된다)’라 한 것으로부터 膿이 바로 膿의 俗字임을 알 수 있다. 『康熙字典』, 『廣韻』, 『集韻』, 『韻會』에서도 모두 ‘膿, 奴冬切, 音農’이라 하였다. 膿은 혈농이 신체에 생기는 것이므로 疔 肉을 더한 이체자로 보인다.

8) 3.5 澣 : 斂(斂, 儉)

澣은 浸漬(잠기다)의 의미로서 본문인 ‘膿大而砭小, 謂之斂(농이 크지만 자침을 적은 부위에 하는 것을 斂이라 한다)’과는 의미가 부합하지 않으므로 다른 글자로 보아야 한다. 高大倫(1990:101)은 이에 대하여 ‘讀謂儉, 不足(儉으로 읽고 족하지 않다는 의미이다)’라 하였고, 『廣雅·釋詁3』에서 儉은 少也(적다)’라 하였다. 馬繼興(1992:288)은 李學勤의 의견에 의거해 斂(同斂, 수렴)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본문의 의미에 의거해 斂자를 해야 하나 의미상 高大倫의 의견이나 馬繼興의 의견 모두 크게 벗어나지 않으므로 한 글자로 한정하지 않고 후일의 연구를 기다리기로 한다. 斂(儉)

과 澣은 성부를 공유하므로 통가로 간주한다.

이상과 같이 張家山『脈書』와 馬王堆 醫書의 異文에 대하여 通用與否, 誤字 등과 함께 각 글자의 의미를 검토하여 고찰하였다. 간혹 異體字나 通假字로 쓰이긴 하였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논의하지 않았다. 몇몇 異文이 楚文字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데, 발견 지역이 戰國時期 楚 지역에 해당하므로 자형에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아래에서는 두 자료에 출현한 모든 이문에 대하여 자형과 음운면에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본다.

III. 異文字形考察

출현한 모든 異文에 대하여 異體字, 通假, 義近通用 그리고 誤字의 넷으로 나누어 분류하였고, 이체자는 偏旁代替(形符, 聲符, 形符聲符), 偏旁追加(形符, 聲符, 形符聲符), 偏旁省略(形符, 聲符, 形符聲符), 筆形變化, 構造變化, 혼합으로 나누었다. 단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언급하지 않았다.

1. 異體字

1) 偏旁대체

① 형부대체 : 脈 : 脈(甲 2.1)³⁰⁾, 卻 : 郤(甲·乙 2.1), 蹕 : 𨾏(장 2.2), 叢 : 叢(甲·乙 2.8), 𤇀 : 𤇀(張 2.9), 脣 : 脣(張 3.3), 聽 : 𦔻(張 3.5), 煖 : 煖(帛 3.5),

② 성부대체 : 脈 : 𦔻(乙 2.1), 衝 : 衝(甲 2.1), 𤇀 : 𤇀(甲 2.9), 囊 : 囊(帛

30) 글자의 나열순서는 앞의 자형이 正字이고 뒤의 것이 異體字, 혹은 通假字, 義近通用字 그리고 誤字이다. 괄호안의 글자는 張은 張家山, 甲은 陰陽十一脈灸經 甲本, 乙은 陰陽十一脈灸經 乙本, 帛은 帛書의 해당부분이다.

3.3), 橐 : 橐(張 3.3), 砭 : 砭(張 3.5), 砭 : 砭(帛 3.5)

③ 형부·성부대체 : 踵 : 踵(甲·乙 2.1), 𨾏 : 𨾏(張 2.1), 衝 : 冲(張 2.1), 衝 : 冲(乙 2.1)

2) 편방생략

① 형부생략 : 繫 : 𦏧(張 2.1), 厭 : 厭(甲·乙 2.1)

편방이 생략된 항목에는 형부생략자만 있어, 성부생략과 형부성부생략은 항목으로 세우지 않았다.

3) 편방추가

① 형부추가 : 厭 : 壓(張 2.1), 肘 : 肘(張 3.5), 𧯛(膿) : 𧯛(帛 3.5)

성부추가와 형부성부추가에 해당하는 글자가 없어 따로 항목을 세우지 않았다.

4) 구조변화 : 聖 : 𡇗(張 3.5),

5) 혼합(형부생략+필형변화) : 繫 : 𦏧(甲·乙 2.1), 癢 : 癢(甲 2.8)

2. 通假字

𨾏 : 𨾏(乙 2.1), 厭 : 蹶(張 2.1), 枕 : 灑(張 2.1), 側 : 則(乙 2.2), 側 : 稷(甲 2.2), 稷(甲 2.2) : 瘦(張 2.2), 痺 : 𦏧(乙 2.2), 伸 : 信(張, 乙 2.3), 惡 : 亞(乙 2.3), 蕩 : 腸(甲 2.3), 蕩 : 惕(張 2.3), 毗 : 際(張 2.5), 毗 : 漬(甲 2.5), 毗 : 𦏧(乙 2.5), 也 : 毆(張, 甲 2.7), 厭 : 慶(甲 2.8), 癢 : 降(乙 2.8), 喝 : 恂(甲 2.9), 芒 : 肱(張 2.9), 𦏧 : 𦏧(甲·乙 2.9), 疸 : 疸(張·甲 2.9), 疸 : 單(乙 2.9), 嗜 : 耆(甲·乙 2.9), 既 : 幾(張·甲 2.10), 幾 : 希(乙 2.10), 彭 : 滂

(甲·乙 2.11), 顛：戰(甲 2.11), 戰：單(乙 2.11), 肩：腎(張 2.11), 肩：癰(甲·乙 2.11), 瘡：齊(張 3.3), 腫：種(張, 帛 3.5), 膿：農(張 3.5), 斂(儉)：儉(張 3.5)

3. 義近通用

驪：疵(甲·乙 2.8), 芒：瞶(甲 2.9), 懸：絕(乙 2.9), 履：屨(張 2.10)

4. 誤字

卻：裕(張 2.1), 臑：肱(張 2.1), 蹠：踵(張 2.1), 枕：耳(乙 2.1), 瘦：瘰(張 2.2), 痺：蹠(甲 2.2), 伸：龍(甲 2.3), 避：逢(乙 2.7), 怏：快(張 2.7), 慶：瘰(張 2.8), 恂：悞(張 2.9), 耆：者(張 2.9), 囂：園(張 3.3), 利：到(帛 3.5)

IV. 結論

이상과 같이 張家山漢簡脈書와 馬王堆漢墓帛書醫書 가운데 두 자료에 공통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한 異文을 고찰하였다. 거의 동시기에 제작되었다고 보여지는 두 자료의 비교를 통해 완전하지 않은 두 자료의 상호보완 효과 뿐 아니라 당시 문자의 사용상황을 고찰할 수 있었다. 보다 심도있는 당시의 문자 상황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각 자료를 분석할 필요가 있지만, 편의상 본고에서는 두 자료에 동시에 보존된 부분만 대상으로 하였다. 문자 상황 뿐 아니라 이 두 자료를 상호비교 연구함으로써 향후 현대한의학과의 연계성을 고찰한다면 매우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參考文獻

- 高大倫(1992)『張家山漢簡「脈書」校釋』成都：成都出版社
- 高亨(1989)『古字通假會典』濟南：齊魯書社
- 郭慶藩(1961)『莊子集解』北京：中華書局
- 裘錫圭(1992)「馬王堆醫書釋讀瑣議」『古文字論集』북경：中華書局.
- 裘錫圭 主編(2014)『長沙馬王堆漢墓簡帛集成』北京：中華書局
- 羅寶珍(2011)「簡帛病名研究」『福建中醫學院學報』20. 68-71
- 連劭名(1989)「江陵張家山漢簡『脈書』初探」『文物』7期 75-81.
- 劉釗(1994)「關於馬王堆和張家山出土醫書中兩個詞語解釋的辨正」『古籍整理研究學刊』5期 34-35.
- 馬繼興(1992:277)『馬王堆古醫書考釋』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 馬王堆漢墓簡帛書整理小組(1985)『馬王堆漢墓簡帛書』文物出版社
- 北京大學中文系、湖北省文物考古研究所(1995)『望山楚簡』, 北京：中華書局
- 배병칠(2001)『黃帝內經·靈樞』서울：성보사
- 山田慶兒編(1985)『新發見中國科學史資料の研究・譯註篇』京都：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 魏啓鵬·胡翔驊(1992)『馬王堆漢墓醫書考釋(壹)』, 成都出版社.
- 임종욱편(2010)『중국역대인명사전』서울:이회문화사
- 張家山247號漢墓竹簡整理小組(2001)『張家山漢墓竹簡』文物出版社
- 趙平安(2000)「戰國文字的避與甲骨文奉爲一字說」『古文字研究』中華書局, 275-277
- 周一謀·蕭佐桃(1988)『馬王堆醫書考注』天津：天津科學技術出版社
- 한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2001)『한의학대사전』서울：정담
- 許慎 撰·段玉裁注,『說文解字注』, 上海：上海古籍出版,1988
- 宋華強「由新蔡簡「肩背疾」說到平夜君成所患爲心痛之癥」,
http://www.bsm.org.cn/show_article.php?id=127,
- 宋華強「新蔡簡「肩」字補證」, http://www.bsm.org.cn/show_article.php?id=284

異體字字典 <http://140.111.1.40/main.htm>

漢典 <http://www.zdic.net/>

한국전통지식포탈 <http://www.koreantk.com/ktkp2014/>

Abstract

A Study of the Variant Characters between Zhangjiashan Hanjian Maishu and
Mawangdui Boshu Medical books

Kim, Ae-young

This study examined Variant Characters in sections covering the same topic from the two books, Zhangjiashan Hanjian Maishu and Mawangdui Boshu Medical books. Through a comparison of these two books, which are believed to have been written in the same year, this study could examine both the complementary effect between the two imperfect materials and the use of letters at that time. For a more in-depth investigation of the use of letters, each book should have been completely analyzed. However, as this was outside the scope of this study, only the sections covering the same topic were reviewed. Through the comparison of these two materials, the link between these two books and modern oriental medicine can also be found in the future.

Key words : Zhangjiashan Hanjian Maishu, Mawangdui Boshu Medical books, Variant Characters, Interpret, loan characters.

투 고 일 : 2016. 9. 10. / 심 사 일 : 2016. 9. 15. ~ 2016. 10. 15. / 게재확정일 : 2016. 10. 16.
